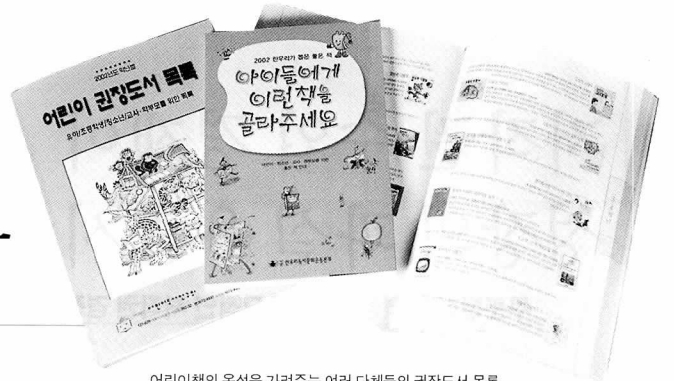


권장도서 목록, 어린이책의 옥석 가려준다

선정과정의 투명성 · 공공성 확보해야



어린이책의 옥석을 가려주는 여러 단체들의 권장도서 목록.

이제 어린이책 시장은 시류를 타지 않는 가장 믿을 만한 시장이 됐다. 1997년 이후 출판시장 전반이 침체에 허덕일 때도 어린이책 시장만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미 많은 출판사들이 황금알을 낳는 어린이책 시장에 뛰어들었고, 후발주자들도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출간되는 책들이 거의 '쏟아져 나오는' 수준이다. 하지만 그 엄청난 양만큼 질을 담보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책을 고르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가려 뽑은 권장도서 목록을 참고하게 된다.

정부기관 · 민간단체 · 출판단체에서 엄선해 발표

현재 권장도서 목록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대략 5~6곳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은 2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어린이도서연구회(이하 어도연)의 <어린이 권장도서 목록>과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이하 한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런 책을 골라주세요>다. 정부기관과 출판단체가 선정하는 목록은 문화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공동주관하는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출판인회의가 주관하는 <이 달의 책>,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등이 있다. 이 밖에 어린이책 출판사들의 모임인 '좋은 그림 · 동화책 모임'의 도서목록, 어린이책 전문서점에서 파내는 목록 등도 나와 있다.

<어린이 권장도서 목록>은 학부모나 교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목록인데, 어도연의 권장도서 선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당 들어오면 160여명의 회원들이 중심이 돼 각 분과별로 갈래를 나눠 1차 선정한다. 그런 다음 2차로 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지막 최종검토를 거쳐 권장도서를 선별한다. 이렇게 선정된 책은 달마다 발행하는 회지 <동화 읽는 어른>에 발표하고 연말에 학년별, 나이별로 100여권씩 권장도서 목록을 발행한다. 어도연은 연구위원 제도를 두고 있지만 연구위원들이 도서선정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한우리는 현장에서 다년간 독서지도를 해온 독서지도사들이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권장도서를 선별한다. 지금까지는 회원제로 운영해왔는데, 앞으로 좀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 학교 교사들 가운데 선정위원 33명을 위촉하고, 아동문학계 관계자들로 또다른 그룹을 만들어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아동 · 청소년 · 만화 부문에 30종의 권장도서를 선정하는 <문화관광부 추천도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 3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분야별 전문심사, 본심사, 최종심사 등 4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전문 서평위원제를 도입해 매달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10종을 선정 · 발표하는데, 그 가운데 1~2권이 어린이도서다. <이 달의 책>을 발표하는 출판인회의는 3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총 35종 내외의 추천도서를 선정하며 달마다 9종의 어린이 권장도서를 발표한다. 선정위원들은 어린이도서 전문가, 아동학과 교수, 어린이과학도서 저술가로 구성돼 있다.

일선 학교에서 권장도서 목록 적극 활용해

학기초가 되면 각 학교마다 학년별 권장도서목록을 발표한다. 하지만 그 목록을 들여다보면 다이제스트

판이라든가 검증되지 않은 책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좋은 책을 가려 뽑아줄 감식안을 지닌 전문 사서나 독서지도 교사가 없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담당 교사들은 어도연의 권장도서 목록을 많이 활용한다. 화양초등학교 강백향 교사는 "어도연에서 목록을 펴낸 이후 현장에서도 권장도서 목록이 활성화됐다. 그 전에 어떤 책을 읽힐까 고민하기보다 예산안에 맞춰 값싼 책들로 채우기 일쑤였는데, 최근 양식있는 교사들이 나서서 위인전, 명작선집 일색이던 권장도서 목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 기관이나 단체들이 펴내는 권장도서 목록의 영향력은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돌베개어린이 문승연 실장은 "시장 전체로 보면 전집물 시장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행본 중심의 권장도서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단행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그런가 하면 한 어린이서점 관계자는 "<어린이 권장도서 목록>은 고객들이 들고 와서 책을 선별할 만큼 신뢰가 두텁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처럼 영향력이 커진 권장도서 목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 출판사 대표는 "권장도서들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민간단체는 물론 출판계, 도서관 등 각계에서 공공성 있는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일산 동화나라 정병규 대표는 "민간단체가 선정한다고 권위가 없다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 어도연처럼 전문성을 갖춘 단체들이 기여한 점을 인정해줘야 한다. 하지만 선정과정을 좀더 투명하게 할 필요는 있다. 심의과정을 홈페이지에 세밀하게 공개하면 더욱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한다. —박옥순 기자